

제 1 교시

화법과 작문

성명

수험번호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난 장마철에 뉴스에서 지역별 강수량을 비교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의 강수량을 수치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일이 약 6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측우기와, 이를 활용한 전국 단위의 관측 체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측우기가 등장하기 전에도 강우량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을 파서 빗물이 스며든 깊이를 재어 조정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토양의 상태에 따라 스며드는 깊이가 달랐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측우기입니다. 1441년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그릇에 빗물을 직접 받아 깊이를 재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듬해 호조의 보고를 거쳐 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측우기는 주철로 만든 원통형 그릇으로 깊이 약 32센티미터, 지름 약 15센티미터이며, 빗물의 깊이는 주척이라는 자를 이용해 약 2밀리미터 단위까지 측정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이 화면은 측우기의 설치 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천문과 기상을 담당하던 서운관에, 지방에서는 각 도의 감영과 고을의 관아에 동일한 규격의 측우기를 설치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서운관에서는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직접 빗물의 깊이를 재고, 비가 시작된 시각과 그친 시각을 함께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강우량 기록은 어디에 활용되었을까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네, 조세 제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해마다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달리 부과하는 연분구등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강우량 기록은 이 풍흉 판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약 백 년간 이어지다가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지만, 1770년 영조 때 세종 당시와 동일한 규격으로 측우기가 다시 제작되어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측우기는 단순한 과학 기구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규격의 기구와 표준화된 보고 절차를 통해 전국의 강우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과학 기구와 제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언급하여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발명자가 기구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발표에서 다룬 세부 내용들을 종합하여 발표 대상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각 자료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이어 가고 있다.
  - ⑤ 청중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표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청중이 접하는 현재의 기상 정보와 관련지어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 ㉠
-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의 한계를 제시하여 새로운 기구 도입의 배경을 설명한다. .... ㉡
- 중앙과 지방의 관측 주체와 역할을 밝혀 체계의 조직적 측면을 부각한다. .... ㉢
- 수집된 강우량 기록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들어 관측 체계의 실용성을 설명한다. .... ㉣
- 관측 제도가 중단된 원인과, 이후 측정 방식을 보완하여 제도를 재정비한 과정을 제시한다. .... ㉤

- ① ㉠을 반영하여, 뉴스에서 지역별 강수량을 비교하는 것을 언급한 후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를 반영하여, 토양 상태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를 반영하여, 서운관의 관원과 지방 수령이 각각 측정을 담당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를 반영하여, 풍흉 판정의 근거 자료로 강우량 기록이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를 반영하여, 임진왜란 이후 측정 방식이 보완되어 제도가 재정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학생 1:** 토양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전 방식으로서는 지역 간 작황 비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겠구나.

**학생 2:** 수령이 직접 측정하도록 한 건, 관측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야.

**학생 3:** 영조 때 측우기를 다시 만들면서 규격을 더 정밀하게 개선한 덕분에, 이후의 관측 기록이 더 정확해졌겠구나.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설명한 이전 방식의 문제를, 발표에서 소개한 제도와 연결하여 추론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설명한 관측 방법을 자신이 알고 있는 행정 원리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설명한 측우기의 복원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영향을 추론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자신의 사전 지식과 비교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원인을 추론하고 있다.

[4~7] (가)는 활동 1에 따른 대화이고, (나)는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한국사 인물 탐구 프로젝트

[활동 1] 역사 인물의 선택을 다양한 관점에서 토의하기

[활동 2] 토의를 바탕으로 역사 에세이 쓰기

(가)

지원: 이번 한국사 수행평가 주제가 ‘역사 인물의 선택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기’잖아. ㉠ 너희는 어떤 인물의 선택이 가장 인상 깊었어?

서준: 나는 광해군이 인상 깊었어.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를 택했잖아.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읽은 판단이라고 생각해.

하은: 나도 광해군에 관심이 있어. ㉡ 특히 명나라의 요구대로 강홍립에게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게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후금에 항복해도 된다는 밀지를 보낸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 파병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실질적 피해를 줄이려 한 거잖아.

서준: 맞아. 광해군의 판단 덕분에 조선은 후금의 직접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

지원: 그렇구나. 너희도 광해군에게 인상을 받았네. ㉢ 그런데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대규모 원군을 보내 조선을 도왔잖아.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광해군이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은: 맞아. 실제로 인조반정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광해군이 명을 배신했다는 거였어.

서준: 함께 이야기하니까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 ㉣ 근데 광해군을 평가할 때 외교만이 아니라 내정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대북파에 의존해서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한 건 당시에든 큰 비판을 받았거든.

지원: 그래. 외교적 판단과 내정의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은: ㉤ 그럼 우리 광해군을 탐구 인물로 정하자. 중립 외교라는 선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면 좋겠어.

서준: 좋아. 다음 활동이 에세이 쓰기니까 각자 자료를 더 찾아보고 글을 쓰면 되겠다.

지원: 좋아. 근데, 나는 자료를 더 찾아보고 글을 쓰고 싶은데... 서준아,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 좀 빌려 줄 수 있어?

서준: 응. 언제까지 필요한데?

지원: (작은 목소리로) 내일 학원이 있어서, 혹시 오늘 중으로 사진 찍어 보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A]

서준: 그래. 점심시간에 보내 줄게.

지원: 고마워. 아까 보니까 수업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놨더라.

서준: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빠진 부분도 많은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B]

(나)

광해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한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전란 속에서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며 의병 모집과 군량 확보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가 왕위에 오를 무렵 조선은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조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다. 명나라의 원군 요청에 강홍립을 파견하면서도 밀지를 통해 상황에 따른 대처를 지시한 것은, 형식적 의리와 실질적 국익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찾은 것이다.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부상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므로써 조선이 군사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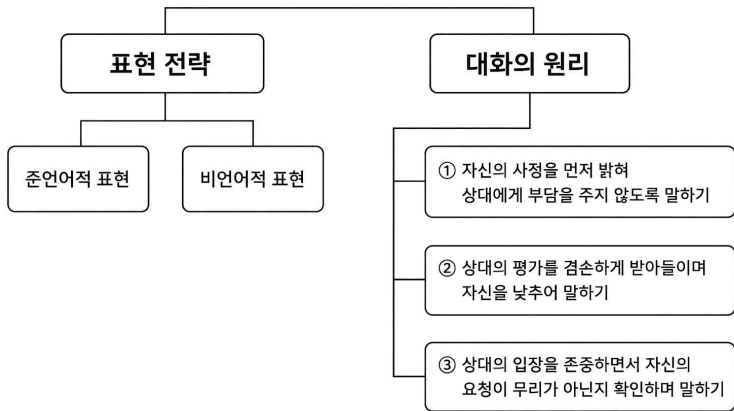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 조선을 도운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재조지은, 즉 나라를 다시 세워 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러한 비판이 인조반정의 명분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리만을 고수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조반정 이후 조선이 친명 정책으로 전환하자 후금의 침략을 받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는 국제 정세를 읽는 군주의 현실적 감각이 담겨 있다. 비록 당시 집권 세력인 대북파에 의존하여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외교 정책에서 보여 준 그의 판단력은 백성의 안위를 우선한 군주의 고뇌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 속 인물의 선택을 하나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되새긴다면, 그의 선택은 오늘날에도 되짚어 볼 만한 역사적 판단으로 기억될 것이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활동 1을 수행하기 위해 탐구할 인물의 선택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 ② ㉡: 광해군의 외교에 대한 서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 당시의 의리론을 반박 근거로 제시하면서, 광해군에 대한 논의의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외교 외에 내정의 측면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하며 인물 평가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 ⑤ ㉤: 탐구 인물을 광해군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하며 탐구의 초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5. 다음을 참고하여 [A], [B]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의 원리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 전략	대화의 원리
①	[A] ㉠	㉠
②	[A] ㉡	㉡
③	[B] ㉠	㉠
④	[B] ㉡	㉡
⑤	[B] ㉢	㉢

6.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들이 (나)에 대해 상호 평가한 내용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잘한 점) 1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세자 시절의 구체적 활동을 추가하여 인물의 배경을 풍부하게 소개한 점 ..... ①
- 2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된, 강홍립 파견과 밀지 사례를 중립 외교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점 ..... ②
- 3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된, 내정의 문제를 근거로 들어 중립 외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뒷받침한 점 ..... ③
- 4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의 선택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추가하여 글을 마무리한 점 ..... ④
- 수정할 점) 4문단: 앞 문단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 ⑤

7.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사 에세이를 쓸 때에는 인물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 그 관점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되, 반대 관점도 함께 검토하면 평가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반대 관점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반박을 제시하면 필자의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 ① 강홍립 파견 시 밀지를 보낸 행위를 근거로 들어, 중립 외교가 현실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② 명의 원군에 대한 당시의 의리 의식을 반대 관점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균형을 높였다.
- ③ 인조반정 이후 겪은 호란의 사실을 들어 반대 관점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필자의 관점을 강화하였다.
- ④ 대북파에 의존한 내정의 문제를 들어, 중립 외교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반대 관점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 ⑤ 인물의 선택을 하나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중립 외교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마무리하였다.

[8~11]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 교지에 '생체 리듬과 학습'이라는 주제로 정보 전달 글을 기고하려고 한다.

**[작성자의 메모]**

- ㉠ 도입: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
- ㉡ 본론1: 크로노타입의 개념과 관련 호르몬의 역할 설명
- ㉢ 본론2: 크로노타입에 따라 학습 효율이 달라지는 원리
- ㉣ 본론3: 현행 등교 시간이 저녁형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
- ㉤ 마무리: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파악하여 학습 전략에 활용할 것을 당부

**[초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으로 권장 시간에 크게 못 미친다. ㉠ 흔히 수면 부족을 늦게 자는 습관 탓으로 돌리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이면에 생체시계의 개인차가 자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크로노타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생체 리듬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크로노타입이란 하루 중 각성과 수면의 시간대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성향을 가리킨다. 이 성향은 뇌의 시교차상핵에 의해 조절되는데, ㉡ 시교차상핵은 빛 자극을 받아 약 24시간 주기로 호르몬 분비와 체온 변화를 지휘한다. 크로노타입은 크게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뉜다. ㉢ 아침형은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이른 시간에 활발하여 오전에 집중력이 높은 반면, 저녁형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시점이 늦어 밤까지 각성 수준이 유지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발달로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점차 늦춰져 저녁형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크로노타입은 학습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간생물학에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수행 수준이 향상되는 현상을 '동시성 효과'라 부른다. 한 연구에서 아침형과 저녁형 피험자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에 작업기억 및 주의력 과제를 실시한 결과, 양쪽 모두 선호 시간대의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㉔ 연구진은 이를 선호 시간대에 대뇌피질의 흥분성이 높아지고 억제 기능이 낮아지는 신경생리학적 변화와 관련짓고 있다. 다만 이 효과는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결정적 지능 과제에서 뚜렷한 반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유동적 지능 과제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크로노타입에 따른 학습 효율의 차이는 교육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체시계와 사회적 일정의 불일치를 '사회적 시차'라 하는데, 저녁형 청소년이 이른 시간에 등교할 경우 이 시차가 커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절반이 평일과 주말 사이에 2시간 이상의 수면 시점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시차가 누적되면 주중의 수면 부채를 주말에 보충하려다 수면 패턴의 불규칙성이 심화된다. ㉕ 이러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정서적·인지적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크로노타입은 개인의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특성이다. [A]

8. 위 초고의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일반적 인식을 반박하는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글에서 다룬 화제가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주제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㉒: 전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해당 기관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㉓: 동일 범주에 속하는 두 유형을 대비적으로 서술하여, 각 유형의 생리적 특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의 원인을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여, 동시성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 ⑤ ㉕: 앞서 서술한 현상의 부정적 결과를 선행 연구에 기대어 제시하여, 해당 현상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9. 위 메모를 고려하여 초고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은 ㉒를 반영하여, 수면 부족의 원인이 생체시계에 있음을 밝힌 연구를 근거로 청소년의 수면 습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② 2문단은 ㉒를 반영하되, 크로노타입을 정의한 후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성향 변화까지 함께 다루어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③ 3문단은 ㉒를 반영하여, 크로노타입에 따른 학습 효율 차이가 모든 종류의 인지 과제에서 동일하게 관찰됨을 밝히고 있다.
- ④ 4문단은 ㉒를 반영하되, 이른 등교 시간이 아침형 학생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 ⑤ 5문단은 ㉒를 반영하여, 등교 시간을 크로노타입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0.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료의 조언: 결론 부분에 본론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

- ① 선호 시간대에 인지 수행이 향상되지만, 생체시계와 사회적 일정의 불일치가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파악하여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에 핵심 학습을 배치해 보자.
- ② 학생들의 수면 부족은 생체시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교는 이를 고려하여 등교 시간을 크로노타입별로 차등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사회적 시차로 인한 수면 부채는 주말의 보충 수면으로 해소할 수 있다. 평일에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충분히 보충하여 학습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선호 시간대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침형에게만 해당하며, 저녁형은 어떤 시간대에도 유동적 지능 과제에서 불리하다. 자신이 아침형인지 확인하고 오전 학습을 강화해 보자.
- ⑤ 크로노타입이 다르더라도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동일하므로, 호르몬에 얽매이지 말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연구 결과

○○대학교 연구진이 아침형과 저녁형 각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선호 시간대에 수행한 작업기억 과제의 정확도가 비선호 시간대보다 평균 15% 높았다. 또한 선호 시간대에는 대뇌피질의 장기 강화 반응이 비선호 시간대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ㄴ. 통계 자료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 중등학생 523명의 크로노타입과 학업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저녁형 학생의 평균 성적은 아침형 학생보다 낮았으며 결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과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관찰되었다.

ㄷ. 전문가 인터뷰

“등교 시간을 늦추면 저녁형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침형 학생의 성적이 함께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이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지요.”

- ○○대학교 교육학과 김◇◇ 교수

- ① [자료 ㄱ]을 활용하여, 3문단에서 선호 시간대에 인지 수행이 향상된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작업기억 과제의 정확도 수치를 추가한다.
- ② [자료 ㄱ]을 활용하여, 3문단에서 동시성 효과의 신경생리학적 기반을 보강하는 근거로 대뇌피질의 장기 강화 반응 결과를 추가한다.
- ③ [자료 ㄴ]을 활용하여, 3문단에서 동시성 효과가 결정적 지능 과제에서만 나타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저녁형 학생의 과목별 성적 차이를 추가한다.
- ④ [자료 ㄴ]을 활용하여, 4문단에서 사회적 시차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사례로 저녁형 학생의 성적과 결석률 자료를 추가한다.
- ⑤ [자료 ㄷ]을 활용하여, 5문단에서 크로노타입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는 글의 마무리를 보강하는 근거로 전문가의 견해를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월가’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